

시연施連칼럼

역사에만 살아있는 청백리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성도에는 뽕나무 8백 그루, 메마른 밭 15경(傾)이 있으니 자식들의 의식(衣食)은 너넉합니다. 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도 특별히 보살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의식은 모두 관에서 받고 있으니 다른 생업이 필요 없으며 신이 죽는 날 여분의 비단이나 재산을 남겨 폐하의 은총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제갈공명(諸葛孔明)이 후주에게 올린 출사표(出師表)이다. 유비가 죽자 족의 모든 권력은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손에 있었지만 그는 재산(財産)이나 모으는 천박(淺薄)한 리더는 아니었다. 그가 죽고 난 후 날 자녀에게 남긴 재산은 출사표(出師表)의 내용과 같았다고 한다. 공명(公明)의 뒤를 이은 강유도 왕 다음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집은 낡은 초가였으며 나라에서 주는 옷만 입어 공명 못지 않은 청렴성을 지켰다.

필자는 이 글을 좋아한다. 경주(慶州)가 낳은 우리나라 원로(元老) 서예가(書藝家)이신 심천(心泉) 한영구(韓永久, 조대작가 국전심사 위원) 선생(先生)이 전서체로 써주신 제갈공명(諸葛孔明)의 12쪽 병풍(屏風) 출사표(出師表, 2022년 안동 좌윤공파 연원재사 기증)을 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를 펴 보곤 한다.

지금의 공직사회(公職社會)를 보면 청백리(淸白吏)는 역사에만 살아있는 것 같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부패지수만 봐서도 알만하다. 굳이 입에 담자면 일부 공직자(公職者)들이 긴 하지만 이들이 나라 부패(腐敗)지수를 올린 공로자(功勞者)들이다.

정치자금(政治資金)이나 기업(企業) 부패, 권력형 비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부패 현상은 방송 뉴스와 신문(新聞) 사회면(社會面)에 현실감 넘치게 수시로 드러났다. 대부분 큰 평수의 집을 몇 채씩 가지거나 업청난 면적의 땅 소유자다.

삼대(三代)가 평생 놀고먹어도 될 재산들이다. 거유(巨儒) 이퇴계 선생의 방은 이불 한두 채와 서안(書案)을 두었을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 뒷마루에서 두향이 올린 매화 한그루 바라보는 퇴계(退溪) 선생의 풍류(風流)와 기개(氣概)가 그립다.

조선(朝鮮) 시대 초 임금을 세 분이나 모신 정승(政丞) 유관은 어찌나 가난했던지 장마월이면 비가 줄줄 새는 방에서 과거 급제 때 하사(下賜) 받은 일산(日傘)을 펴들고는 아내에게 "일산(日傘) 없는 집은 장마월을 어떻게 나나?"고 걱정했다고 한다.

이 집에 우산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 비우당 다리가 청계천(淸溪川) 복원(復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지만 후인(後人)들은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어느 일본 대사의 회고록(回顧錄)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라 할 동경대를 나와 대장성 1급 자리인 주계국장(예산실장)에 올라 관료(官僚)로서는 가장 출세한 엘리트이었지만 그의 집은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던 때에 가졌던 이십 평 규모의 집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했다.

국회(國會) 청문회(聽聞會)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일이다. 직급이 오르기만하면 집부터 넓게 키우는 등 재산(財產) 불리기에 얹힌 공직자(公職者)들의 인형(人形) 흉내 같은 말로 "국민 눈 높이와는 맞지 않았다"는 사과는 뻔뻔스럽기까지하다.

대처와 월슨 영국 수상이 퇴임과 더불어 옛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對照的)이다. 건강하고 인간관계 좋고 육심내지 말고 사는 것이 행복방정식이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만든 행복방정식도 건강하고 육심 물리치고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라 했다. 행복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별로 다른 것이 없건마는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일부는 허겁지겁 부를 쌓는 모습이 마치 자동차 경주를 보는 것 같다.

저 유명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쓴 디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의 문신文臣이자 실학자, 저술가, 시인)은 무릇 모든 공직자(公職者)는 객사(客舍, 조선시대 여행자의 숙소)에 투숙하는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약용(丁若鏞)은 "나그네는 아침이 되면 쓰던 물건을 객사에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듯이" 공직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늘 얘기했었다.

제432주기 충민공 권종 금산군수 추모제 봉행

제432주기 충민공(忠愍公) 권종(權悰) 금산군수 추모제가 7월 31일 11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25-1에 위치한 '권종민공 순절비' 앞에서 이법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광근대 금산향교 전교, 제원면 이장 및 마을 주민,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 회장, 권행완 편집국장, 후손 권구승 종손, 권순성 안동권씨 양근공 종친회 고문, 권기송 양근공 종친회 회장, 권기양 충무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추모제는 개제사(開祭辭), 강신례(降神禮), 참신례(參神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독축(讀祝), 애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사신례(辭神禮), 망묘례(望燎禮), 폐제사(閉祭辭), 소연(小宴)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육상회, 아헌관에는 김한중, 종헌관에는 신정교로 분정하여 헌작했다.

충민공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 3월에 금산군수로 부임하여 6월 22일 충북 영동을 거쳐 금산으로 쳐들어오는 왜군을 맞아 제원찰방(濟原察訪) 이극경 등과 천내강 근처에서 벌어진 개티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했다. 아들 권준 또한 아버지와 함께 혈전을 벌이다 끝내 전사하고 애망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5년(선조38)에 선무원 종공신 1등에 책훈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조정에서는 1710년(숙종36) 충민공의 충의를 기려 정려(旌閭)를 세우고 그 이듬해 1711년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1878년(고종15) 비를 세웠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는 일본인 금산경찰서장의 지시로 거의 폭파될 뻔하다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폭파는 겨우 피했으나 땅속에 파묻히는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1945년 광

복이 되자 비를 다시 세웠다. 그러나 비각은 없었다. 1974년 당시 조천시 금산군수는 충신의 순절비가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도비(道費)와 군비(君費)를 지원받아 비각을 세워 오늘에 이르렀다.

충민공은 문종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둘째 문경공(文景公) 자재(止齋) 권제(權踶)의 4남 연천공(漣川公) 권휘(權麾)의 후손이다. 증조부는 양근공(楊根公) 권교(權喬)이며, 강화부사를 지낸 강화공(江華公) 권직(權勲)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권율장군의 아버지 강정공(康定公) 권철(權轍)의 형 중립도찰방을 지낸 권지(權軸)이며, 그래서 권율장군과는 4촌간이다. 4촌 형제끼리 충민공은 금산군수로서 천내강 개티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써우다 최후를 맞이했고, 권율장군은 천내강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치에서 일본군과 싸워 육지에서 최초로 승전하는 전과를 올렸다.

충민공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 3월에 금산군수로 부임하여 6월 22일 충북 영동을 거쳐 금산으로 쳐들어오는 왜군을 맞아 제원찰방(濟原察訪) 이극경 등과 천내강 근처에서 벌어진 개티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했다. 아들 권준 또한 아버지와 함께 혈전을 벌이다 끝내 전사하고 애망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5년(선조38)에 선무원 종공신 1등에 책훈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조정에서는 1710년(숙종36) 충민공의 충의를 기려 정려(旌閭)를 세우고 그 이듬해 1711년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1878년(고종15) 비를 세웠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는 일본인 금산경찰서장의 지시로 거의 폭파될 뻔하다 후손들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폭파는 겨우 피했으나 땅속에 파묻히는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1945년 광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40>



권길현 편집위원장

진봉일고(震峯逸稿)

1603년에 식년(式年) 사마시(司馬試)에 안동 거주 유학(幼學)으로 생원(生員)에 합격하였다. 1627년에 학행으로 추천되어 상의원별좌(尙衣院別坐)가 되었다. 1628년에 임금을 호종(扈從) 한 공으로 원종훈(原從勳)을 받았다. 1630년에 세자의 위사부술(世子翊衛司副率)이 되고, 1633년에 침랑(寢郎)에 제수되었다.

1636년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江華)로 왕실을 호위(護衛)하여, 소무(昭武)·영사(寧社)의 두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으나, 청(淸)나라와의 강화(講和) 후 벼슬을 버리고 태백산(太白山)으로 들어가 명(明)나라를 기리는 대명오(大明塢)를 쌓고 그 안에 와룡초당(臥龍草堂)을 지어 두문불출 학문에 전심했다.

세상을 떠난 뒤 320여 년인 1974년에 태백산에 있던 와룡초당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臨河里)로 이전 복원하고 와룡암(臥龍庵)이라 하였다. 배위 숙인(淑人) 능성구씨(綾城具氏)는 구선윤(具善胤)의 딸이고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의 후손이다. 묘소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구로동(九老洞) 선고 묘소 아래 오향(午向) 합쯤이다.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이 비문을 지었다.

<진봉일고>는 권굉(權宏, 1575-1652) 공의 시(詩)와 만사(輓詞)·제문(祭文)을 모은 것으로 2권 1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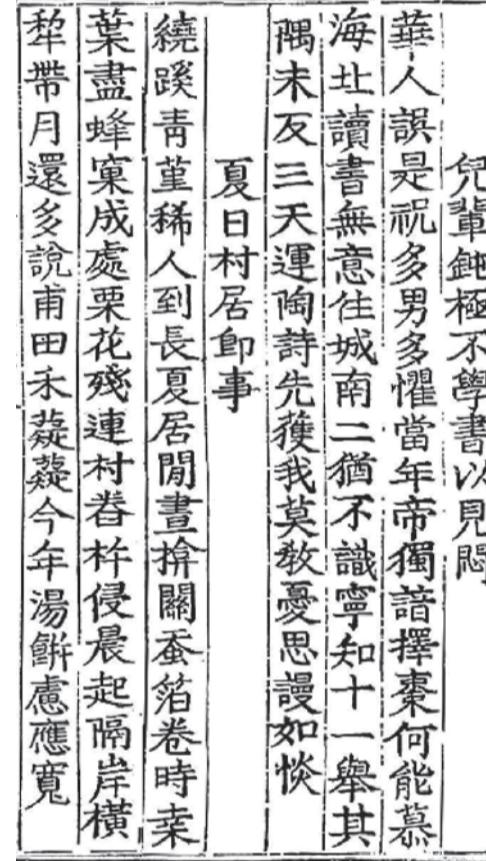
공의 자(字)는 인보(仁甫)이고 진봉(震峯)은 호이다.

안동권씨 23세(世)로 부정공파(副正公派)이다.

안동 이계리(伊溪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집의(執義)에 추증된 권대기(權大器, 1523-1587)이고, 모친은 곡강배씨(曲江裴氏)이다.

회곡(晦谷) 권춘란(權春蘭, 1539-1617)의 문인이다.

부친과 형(兄) 송소(松巢)·권우(權宇, 1552-1590)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으로 학덕이 높았고, 어려서부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다.



讀書無意往城南(독서무의왕성남)
글 읽는 데 뜻이 없어 성남으로 가버렸네
二猶不識寧知十(이유불식녕지십)
열에 둘도 모르는데 어찌 열에 열을 알겠나
一舉其闕未反三(일거기우미반삼)
모퉁이 하나 들어줘도 나머지 셋을 못 드네
天運陶詩先獲我(천운도시선선희아)
천운이라 한 도연명의 시에 내 맘 뺐겼으나
莫教憂思謾如惔(막교우사만여담)
모顿이 하나 들어줘도 나머지 셋을 못 드네
근심스런 생각이 편안한 듯 속지는 않는다면

첫 번째 구는 옛날 요(堯) 임금 때 화(華) 땅을 지키는 봉인(封人)이요 임금에게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 이 세 가지로 축수한 일을 말한다. 일곱 번째 구는, 도연명(陶淵明)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아들들을 꾸짖다>라는 시(詩)를 지어 <다섯 아들이 있으나 모두 종이와 봇을 좋아하지 않네... 천운(天運)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또한 술잔이나 기울여야지>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두 번째 시는 제목이 <여름날 마을에 거쳐하며 보고 들은 일>이다. 제목 그대로 여름날 농촌의 여러 가지 풍경을 읊은 것이다.

繞蹊青董稀人到(요해청근희인도)
오랑캐꽃 푸르게 편 길 오는 사람이 드물어
長夏居閒畫掩關(장하거한주엄관)
긴 여름 한가로이 지내니 낮에도 문 닫았네
蚕箔卷時桑葉盡(잠박권시상엽진)
누에 채반을 거둘 때 봄잎도 다 저버렸고
蜂窠成處栗花殘(봉과성처율화잔)
벌이 집을 지은 곳에는 밤꽃이 다 떨어졌네
連村春杵侵晨起(연촌옹자침신기)
마을 연이은 절구질소리에 새벽에 일어나서
隔岸橫犁帶月還(격안횡犁대월환)
언덕 너머에서 밭 갈고 달빛 안고 돌아오네
多說莆田禾薿薿(다설甫田禾薿薿)
다들 큰논의 벼가 무성하게 잘 자랐다 하니
今年湯餅慮應寬(금년탕병려응관)
올해는 떡국 걱정 응당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시는 대략 4세기 전에 지은 것인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의 우리 농촌 모습과 아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권기송 양근공 종친회 회장이 헌작하고 있다.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금산군 종친회 충민공 추모시설 건립 축구